

중국 근대 지식권력과 “학계(學界)”의 형성*

車泰根**

<목 차>

1. 치통(治統), 도통(道統), 학통(學統)
2. 근대매체: 치(治)/학(學)의 중심권력
3. “학계”의 건립과 과학주의
4. 대학 및 연구소: 지식권력의 중심
5. 중국 근대 지식권력의 문제점

1. 치통(治統), 도통(道統), 학통(學統)

쉬지린(許紀霖)은 청말 정치사상의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권력과 권위의 분화이고, 민초시기 위기는 바로 권력의 위기라기보다 권위의 위기라고 하였다.¹⁾ 즉 천도(天道)를 바탕으로 권력과 권위가 일체화 되었던 군주제에서 공법의 시대로 전환되면서 권력과 권위가 이원화되었으며,民国초기 헌정의 위기는 바로 이러한 권위의 사회적 기반이 확립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위’의 문제는 비단 정치방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또 권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사회적인 승인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자기근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M0013).

** 인하대학교 부교수.

1) 許紀霖, <爲何革命壓倒了憲政-辛亥前後制度轉型之歧路>, 《辛亥革命100周年紀念國際シンポジウム神戸會議:全球史中的辛亥革命》(第2分會), 2011, 1~11쪽.

거적인 토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타자에 의존하는 권위는 그 자체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20세기 이전 중국 전통사회에서 권위는 군주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당시 권위는 두 가지 요소에 기반 해 있었다. 하나는 정치적 권력으로서 이른바 ‘치통(治統)’이고, 다른 하나는 윤리적이고 이념적인 합법성, 즉 ‘도통(道統)’이 그것이다. 이 두 권위는 역사 초기에 ‘치도합일’ 혹은 ‘정교합일’과 같이 통일되어 있었으며 이를 이상적인 상태로 간주하였다. 예를 들어 《예기·중용》에 “지위에 있어도 덕이 없으면 감히 예약을 만들지 않는다. 또 덕이 있어도 그 지위에 있지 아니하면 역시 감히 예약을 만들지 않는다”²⁾라고 한 바와 같이 사회의 전체 질서체계로서의 예약에 대한 제정권은 덕과 지위를 겸비한 자에게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덕은 내재적인 가치로서 상대적으로 분별하기 모호한 반면, 지위자체는 외적인 표지를 지닌 것으로 판명하기 쉽고, 또 지위는 실질적인 권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치도합일은 주로 치권을 장악한 군주를 통해 구현되어 왔다.

그러나 치도합일이라는 이상은 현실에서 군주를 중심으로 호족 혹은 귀족의 타협이라는 상황에서 구현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 오면서 치도 일변의 권위가 지배적이고, 통치 이념은 단순히 치도를 보완하거나 보좌하는 기능으로 간주되었다. 그러한 상황에 일대 전환이 발생한 것은 송대였는데, 이는 과거제를 통해 학문과 통치에 동시에 참여하는 새로운 지식인 계층인 사인(사대부)들의 출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러한 계층의 특징에 대해 시마다 겐지는 지식의 독점을 통한 윤리능력에 대한 독점, 그리고 신분의 자유로운 이동을 들었는데,³⁾ 이러한 사대부는 정치에 참여함에 있어 단순 관료가 아닌 자신들의 이념적 정체성인 유가 경전을 중심으로 한 도통의 실현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신념의 유지와 사회적 실천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서원(書院)과 사창(社倉)이 바로 그 대표적인 형태였다.⁴⁾ 즉 그들은 지

2) “雖有其位，苟無其德，不敢作禮樂焉；雖有其德，苟無其位，亦不敢作禮樂焉。”朱熹撰，《四書章句集注》(中華書局，1983)，36쪽.

3) 시마다 겐지 저, 김석근 역, 《주자학과 양명학》(까지, 1993) 제1장 참고.

식과 이념에 대한 독점 외에도 중앙행정과 별개인 자발적인 지방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이상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도통(道統)과 치통(治統)이 분리되어 군주는 치통을 소유하는 반면 도통은 사대부 집단이 자임하였다. 이는 정치상에서의 황권과 사권(士權)의 상호 경쟁이 외화된 것으로, 사인(士人)들은 추상적인 도통을 공자에 의탁하여 공자를 도통의 근본이자 그 권위의 토대로 삼고자 하였으며, 그 상징적 의미로서 공묘(孔廟)의 위상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에 남송의 옹화(熊鉉)는 “도(道)를 존중하여 사당을 두었는데, 이는 도통을 위해 설치한 것이다”⁵⁾라고 하였고, 또 명대의 왕세정(王世貞)은 “태묘에 배향되는 자는 그 군주를 보좌하여 당대의 치통을 확충할 수 있는 사람이고, ... 문묘(文廟)에 배향되는 자는 그 스승을 보좌하여 당대의 도통을 확충할 수 있는 사람이다”⁶⁾라고 하여 태묘와 문묘를 각각 치통과 도통의 상징적인 제도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이, 공묘(孔廟)는 송대 이후 사대부계층이 도통을 황권으로부터 독립시켜 별도의 권위를 수립하기 위한 제도적 표현이었다.

공묘의 설치와 그에 대한 국가적인 승인이 권위와 관련하여 지니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천도에 비해 공묘는 보다 구체적이고 문헌적인 실질을 갖추고 있으며, 공자의 성인으로서의 위상은 황제의 권위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공묘에는 공자이외에

- 4) 田浩(Hoyt Cleveland Tillman), <行動中的分子與官員：中國宋代的書院和社會>, 田浩編, 楊立華·吳艷紅譯, 《宋代思想史論》(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3, 475~488쪽) 참고.
- 5) “尊道有祠, 爲道統設也.” 熊鉉撰, 《熊鉉勿軒先生文集·祀典議》卷四(商務印書館, 民國25年), 48쪽.
- 6) “太廟之有從祀者, 謂能佐其主, 衍斯世之治統也, ... 文廟之有從祀者, 謂能佐其師, 衍斯世之道統也.”(明)王世貞撰, 《弇州四部稿·文部·策四首·山西第三問》卷一百十五. 도통과 치통의 자기 다른 갈래에 대해서는 명대의 진건(陳建)의 다음과 같은 언급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제왕의 계통이 있고, 성현의 계통이 있다. 한고조, 당태종, 송태조가 새로운 왕조의 토대를 닦고, 여러 영웅들을 평정하여 사해를 통일함으로써 위로는 당요(唐堯)와 우순(虞舜), 하(夏), 은(殷), 주(周)를 계승한 것은 제왕의 계통이다. 맹자, 주자(朱子)가 이단을 배척하고 사설을 증식시켰으며 잡다한 학설을 배격하여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함으로써 위로는 주공(周公), 공자, 안자(顏子), 증자(曾子), 자사(子思)를 계승한 것은 바로 성현의 계통이다.(有帝王之統, 有聖賢之統. 如漢祖, 唐宗, 宋祖開基創業, 削平羣雄, 混一四海, 以上繼唐, 虞, 夏, 殷, 周之傳, 此帝王之統也. 孟子朱子距異端, 息邪說, 辟雜學, 正人心, 以上承周公孔子顏曾子思之傳, 此聖賢之統也)”(明)陳建撰, <學菴通辨·終編下>(卷之十二), 《學菴通辨(二)》(商務印書館, 民國25年), 160쪽.

공자의 사상과 학문을 해석하고 선양한 제자들 및 역대 학자들을 배향하게 함으로써 공자의 사상의 계통을 통치자가 아닌 사대부를 중심으로 한 문인에 두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대부들은 공자의 사상과 학문에 대한 해석권을 통해 황제의 독단적인 권력행사에 맞설 수 있었다.

공묘의 위상을 둘러싼 황권과 사권(士權)의 길항관계로 인해, 당 현종(玄宗)부터 원대 무종(武宗)때까지 줄곧 공자를 존송하여 왕으로 칭하던 것이 명대와 같이 황권이 강화된 시기에는 이를 부정하거나, 공자의 권위를 황권의 아래에 종속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예를 들어 명대 가정(嘉靖)년간에는 공자의 지위는 선성(先聖)의 지위에서 단순한 선사(先師)의 지위로 폄하되어, 국가 의례에서 도통의 권위는 치통의 권위 하에 놓이게 되었다.⁷⁾ 그러나 이민족 왕조인 청대에 들어와서는 한족에 대한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역대 황제들은 오히려 공자를 더더욱 추존하였다. 즉 청조는 중원을 평정한 이후, 소수의 이민족 왕조로서 정치적 합법성을 수립하기 위해 공자를 중심으로 한 유교의 이념을 빌려올 수 밖에 없었다.⁸⁾ 왜냐하면 당시 명조가 멸망했음에도 명대 유민(遺民)들이 청조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바로 치통과 별도로 도통의 초월적인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유자(儒者)의 계통은 제왕의 계통과 천하에 병행하며 상호적으로 흥하고 쇠한다. 이 양자가 합일이 되면 천하는 도로써 다스려지고, 도는 천자를 통해 밝혀지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쇠하게 되면 제왕의 계통은 단절되지만, 유자가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하여 도를 보존하면 그 도는 사람을 통해 보존되어 없어지지 않게 된다.⁹⁾

이와 같이 왕부지는 명 멸망으로 치통이 단절되었지만 도통은 이와 별개로

-
- 7) 黃進興, 《優入聖域: 權力, 信仰與正當性》(陝西師範大學出版社, 1998), 142~184쪽.
 8) 청조의 통치적 합법성 구성과 유학의 사상적 이념의 관계에 대해서는 汪暉, 《中國現代思想的興起》(三聯書店, 2008)의 상권(上卷) 제2부(第二部)중 第5章 참고.
 9) “儒者之統與帝王之統並行於天下, 而互爲興替, 其合也天下以道而治, 道以天子而明; 及其衰, 而帝王之統絕, 儒者猶保其道以孤行而無所待, 以人存道, 而道可不亡.” 王夫之, 《讀通鑒論·文帝》(卷一五)(中華書局, 1975), 497쪽.

학인을 통해 보존될 수 있으며, 이를 보존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국가의 운명은 가변적일 수 있지만, 도통을 바탕으로 한 ‘천하(天下)’는 다른 차원에서 영속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도통의 보존을 통해 이민족에 대항하고자 한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만주족 청조는 오히려 치도합일이라는 유가의 이상을 설파하며, 군주 스스로 도통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였다.

하늘이 성현을 낳아 군주와 스승을 냄으로써 만세의 도통이 전해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만세 치통이 의거하는 바이다. 요, 순, 우, 탕, 문, 무 이후 공자, 증자, 자사, 맹자가 있었고, 역, 상서, 시, 예, 춘추 이외에 논어, 대학, 중용, 맹자의 서적이 있어 하늘에서 일월이 밝게 빛나는 것 같고, 땅위에 오악이 우뚝 솟고, 4대 강이(양자강(長江), 황하(黃河), 회하(淮河), 제수(濟水)) 흐르는 것과 같다. …도통이 존재하면 바로 치통도 존재하게 된다.¹⁰⁾

이러한 태도는 명대와는 매우 대조적인 양상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치도합일을 통해 치통과 도통 사이의 긴장감을 해소함으로써 도통에 의한 치통의 견제역할이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즉 도통이라는 명목 하에 주자학적인 유가해석을 정통으로 삼고, 이를 국가의 통치이데올로기로 삼으로써 도통은 오히려 국가통치로서의 치통을 보좌하는 기능을 맡게 된 것이다. 도통이 하나의 독립적인 권위로서 지위를 지니기 위해서는 사대부 집단에게 해석권이 주어져야 하는데, 주자학을 도통의 정통적인 해석방법이자 전수자로 인정하는 순간 사대부 집단의 해석권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청 왕조의 이러한 시도와는 별도로 학인들은 주자학적인 도통과는 다른 다양한 계통의 도통을 수렴하려고 하였다. 명말청초시기에 유행한 ‘학안(學案)’은 바로 학술의 흐름이나 계보를 밝히는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문의

10) “惟天生聖賢，作君作師，萬世道統之傳，卽萬世治統之所系也。自堯、舜、禹、湯、文、武之後，而有孔子、曾子、子思、孟子；自易、書、詩、禮、春秋而外，而有論語、大學、中庸、孟子之書，如日月之光昭於天，嶽瀆之流峙於地，……道統在是，治統亦在是矣。”乾隆，〈日講四書解義序〉，《清聖祖禦制文初集》卷一九。

계통을 송대 이전으로 소급해 적용하면서 주자학에서 소홀히 하거나 가치 폄하했던 학자들을 정통의 반열에 세움으로써 주자학과는 다른 도통의 계보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명말청초의 손기봉(孫奇逢, 1584~1675)이 1666년 발표한 《이학종전(理學宗傳)》에서는 송명 이학가 11명 이외도 한대에서 당대까지 경사(經師)들 13명을 이학의 종전에 포함시켰다.¹¹⁾ 그리고 도광·함풍년간에 하남의 유정조(劉廷詔)는 이를 더욱 확충하여 송대 5명의 이학가의 정전(正傳)외에 한대부터 명대까지의 109명의 열전과 기타 20명을 수록하였다.¹²⁾ 이와 같이 청대에는 도학(道學)일색의 유학정통에서 벗어나 정현(鄭玄)과 허신(許慎)과 같은 한대 경학자들도 이학의 정통계통에 포함되었으며, 나아가 공묘에서 함께 배향하기도 하였다.¹³⁾

이러한 변화는 한학과 송학의 구분에 대한 타파, 혹은 청대의 한학적인 경향성을 통해 설명할 수 있지만, 권력과 권위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로 치통과 그것을 보좌하는 관방의 도통에 대한 비판의식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학은 도를 새롭게 밝히는 ‘명도(明道)’의 성인보다는 경전을 전수하는 ‘전경(傳經)’의 경사(經師)를 높이 평가하였는데,¹⁴⁾ 이는 ‘전경’을 업으로 삼고 있는 당시 사대부들의 자기 지위와 권위를 제고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장쇼우안(張壽安)은 “도통의 타파와 학통의 재건”이라고 해석하고 있다.¹⁵⁾ 도통에서 ‘학통’으로의 전환은 결국 관방의 도통과는 달리 또 다른 권위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청대의 학통은 특유의 전문적인 학문방법을 바탕으로 경전을 비롯한 다양한 역사문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도통과는 달리 치통과 동시적으로 병행하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학통의 건립은 기존의 치통이나 도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논증방식을 통해 정

11) 孫奇逢 輯, 《理學宗傳》(上海古籍出版社, 1995).

12) 劉廷詔 撰, 《理學宗傳辨正》(六安求我齋, 清同治11年(1872)).

13) 청대에 공묘에서의 정현과 허신의 배향과 그 의의에 대해서는 張壽安, <打破道統重建學統—清代學術思想史的一個新觀察>,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近代史研究所集刊》 第53期, 民國95年6月, 60~79쪽 참고.

14) “孔子之志在六經, 故後世之從祀孔廟者, 當以傳經之功爲斷.” 洪頤煊 撰, <鄭康成不應罷從祀議>, 《筠軒文鈔》卷一(《續修四庫全書·集部·別集類》), 548쪽.

15) 張壽安, 앞의 논문.

치에 대한 비판을 제기할 수 있었다. 물론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방식을 통한 비판은 도통에서와 같은 강력하고 직접적인 이념적인 비판을 수행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청조에서도 청대의 사대부들의 한학적인 연구와 학문방법을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탈정치적 효과에 주목하여 이를 방임내지 지지하기도 하였다.¹⁶⁾ 하지만 청 중기의 대진(戴震)이나 공자진(龔自珍), 말기의 강유위(康有爲)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고증적인 박학(樸學)은 이념과 학문 논쟁에 있어 방법론적인 우위를 점함으로써 정치와 이념에 대한 비판과 재구성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¹⁷⁾

2. 근대매체: 치(治)/학(學)의 중심권력

청대의 학통이 새로운 학술의 권위를 수립하는 것이었다면, 그러한 권위에 대한 최고의 도전은 청조의 정치적 견제가 아니라 사회전반과 담론상의 패러다임의 변화로부터 야기되었다. 즉 청말 서학의 유입은 학문의 영역을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학문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19세기 후기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된 서학은 학문자체보다도 특정 지식으로서 수용되었다. 즉 서학은 여전히 청대의 학문적 범주, 즉 전문분과 영역 혹은 실제 조사에 근거한 경제의 학문의 범주로서 수용되었다.¹⁸⁾ 결국 19세기 후기의

16) 량치차오(梁啟超), 장타이엔(章太炎) 등 청말 학자들의 청대 학술과 조정에 대한 비판은 바로 청대 학인들의 탈정치내지 무관심을 조장한 것에 초점이 주어져 있다. 梁啟超, <論中國學術思想變遷之大勢>, 《飲水室文集》(七)(臺北: 臺灣中華書局, 1978); 章太炎, <清儒>, 《章太炎全集》第三冊(上海人民出版社, 1983); 章太炎, <廬書·學隱>, 《章太炎全集》第三冊(앞의 책) 참고.

17) 대진(戴震)은 고증학적인 방식을 통해 송대 이학의 핵심개념을 비판하였고, 공자진(龔自珍)은 특수 분과학문영역인 여지학(興志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강여우웨이(康有爲)는 금문경학의 입장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증방식에 있어서는 문헌비판을 중시하는 고증학적 입장을 취하였다.

18) 청대의 경제학문은 바로 확장된 고증학적인 방법론과 천하경영이라는 이학의 이념이 결합된 것으로 이는 청대 후기의 학술의 경향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서학자체는 청대의 학통을 약화시키기보다는 그 중요성과 가치를 더욱 강화시켜주었다. 하지만 19세기 청일전쟁을 전후하여 서학의 범위가 과학과 실용지식에서 정치학과 사회학과 같은 사회과학으로 확대되면서 학문 연구상에 있어 담론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 20세기 초 그러한 새로운 담론을 주도한 것은 바로 번역서들이었다. 역사와 정치학을 비롯하여 서구의 근대학문이 번역을 통해 급속히 소개되고, 과거제의 폐지와 유학생들의 급증으로 새로운 지식계층이 등장하면서 한학을 기반으로 한 청대의 학통은 전체 학술담론에서 주변화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청말시기는 정치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학술(도통, 학통)의 권위 또한 미약해지며 권력과 권위의 사회적 분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약해진 정치와 학술의 권위를 대신한 것은 바로 새롭게 등장한 언론계였다. 신문과 잡지를 중심으로 한 언론계는 단순히 사회 여론의 형성기제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정치기제이자 학술기제로서 급속하게 사회의 중요한 권위로서 자리 잡아 갔다. 그리고 이러한 언론의 중심에는 바로 여러 정치 및 사회운동 집단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들 조직은 제도적인 측면이나 학술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문적인 그룹이라기보다는 계몽운동가적인 성향이 지배적이었다.

물론 전문적인 연구, 즉 농업이나 과학, 지리, 공예와 같은 특정지식에 대한 전문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른바 각 전문영역을 중심으로 한 학회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학술 패러다임의 전환이 발생하던 시기인 19세기 말부터 보여 진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량치차오인데, 그는 무술변법운동 시기에 이미 변법의 핵심적인 한 요소로서 “학회(學會)”의 의미를 거론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는 단지 지식과 인재의 규합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을 뿐이다. 도서의 체계적 구입과 다양한 인재의 규합을 통해 상호 지식교류와 토론을 전개함으로써 국가에 유용한 지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회의 위상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한 국가의 지혜와 지식을 한데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의회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公司)이며, 나머지 하나는 바로 학회(學會)이다. 하지만 의회와 회사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예는 모두 학회에서 나오므로, 학회가 가장 기본이 된다.¹⁹⁾ 따라서 현대 세계의 경쟁은 표면적으로는 무기의 경쟁, 상업의 경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학술의 경쟁이다.

“오늘날 인재들은 걸핏하면 서구는 상업으로 전쟁(商戰)을 한다고 하지만, 이는 실제로는 학술로 전쟁(學戰)하는 것임을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상업에 학술이 없으면 어떻게 싸울 수 있고, 어떻게 상업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오늘날 중국은 학회를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²⁰⁾

“학술전(學戰)” 관념은 바로 19세기 말 중국 학회건립의 이념적 토대이다. 이는 서구에서 당시 막 제기된 것으로, 바로 19세기 후반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관념이었으며, 따라서 중국에서의 이러한 관념은 서구와 거의 동시대적인 것이었다. 특히 1897년에서 1898년 사이, 유신파가 집결되어 있던 후난(湖南)에서 학전관념이 제기되면서²¹⁾ 전국적으로 “학회열”이 급속히 확산되었다.²²⁾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학술은 국가의 도구적 가치로서 그 중요성이 부여될 뿐이다. 즉 유신파가 말하는 학회는 모든 지식에 대한 영역별 규합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실용적 지식의 학문에 대한 연구나 사회적 여론을 한데 규합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학회는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인이 중심이 된 연구 집단이 아니라, 각 지식인이 다양한 교양을 익히기 위해 두루 섭렵해야 할 지식그룹이었다.

19) 梁啓超, <論學會>, 《時務報》第10冊, 1896. 11.5.

20) “今之人才, 動曰泰西以商戰, 不知實以學戰也; 商苟無學, 何以能戰? 學苟無會, 何以教商? 故今日之中國以開學會爲第一要意.” <湖南龍南致用學會章程>, 中國史學會 編, 《戊戌變法》(四)(上海人民出版社, 1957), 465쪽.

21) 1897년 말을 전후하여 후난에 “學戰會”가 결성되어 그 <學戰會啓>가 《湘報》 제58호에 실렸으며, 1898년 《湘報》 165호에는 차오덴치우(曹典球)의 <兵戰不如商戰商戰不如學戰說>이 실리는 등 후난 지역을 중심으로 학전관념이 보편화 되었다.

22) 1895년부터 1910년까지 왕얼민(王爾敏)의 대략적인 조사에만 근거해도 162개의 각 중 학회가 조직되었다. 王爾敏, 《晚清政治思想史論》(華世出版社, 民國58年) 중 제6장 “淸季學會彙表”(134-165쪽) 참고. 청말 이래 중국 각 분야 학회의 역사에 대해서는 《中國學會史叢書》(第一輯, 13冊)(上海交通大學出版社, 2008). 참고. 또 무술년법시기 학회의 상황에 대해서는 張玉法, <戊戌時期的學會運動>, 《歷史研究》(1998年5期), 5~26. 참고.

그 결과 당시 요구되던 지식인은 근대적 의미의 전문가라기보다는 전통적인 지식인 유형인 통재(通才)에 가까웠다. 당시에는 양무운동시기 서구의 근대과학분야의 전문지식인은 그 학문이 지닌 당대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몰각한 채 단지 기술적인 지식에 매몰됨으로써 실제 사회변혁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식인에게 우선 요구되는 것은 바로 전체적인 시대정신에 대한 자각이고, 그러한 시대정신에 자신의 지식의 의미를 접목시키고 아울러 사회의 진보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정확성”을 우선 요구하였고, 그 역할 역시 정치적 의미에서의 기능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인은 소위 계몽지식인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특징이다. 구체적인 영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아니라 의식계몽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학회는 의식을 계몽하고 지식인을 조직하는 한 방식이었던 것이다. 당시 이러한 지식계의 상황을 근대학문의 관점에서 관찰하고 비판한 사람은 바로 왕귀웨이였다. 그는 20세기 초 중국학술계를 평하면서 당시 모두 문학을 정치교육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보았으며, 유학계 역시 주로 정치적 야심이나 실리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²³⁾ 또 비록 문학가를 예로 말한 것이기는 하지만, 경제적 목적을 위해 직업적으로 문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하면서 “전문”적인 문학가를 주창하였다.²⁴⁾ 여기서 전문적 문학가란 바로 문학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문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신해혁명 이전 중국에는 서구적 근대의 의미에서의 “학계”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특히 당시 베이징대학의 전신인 경사대학당(京師大學堂)의 학술연구 상황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 1917년 차이위엔페이(蔡元培)가 베이징 대학의 총장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신해혁명이 발발하고도 5년이 지나도록 베이징 대학은 그 내용이나 구성, 조직 어느 면에서도 근대적 학문의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

23) <論近年之學術界>, 《王國維文集》(第三卷)(中國文史出版社, 1997), 38쪽.

24) <文學小言>, 《王國維文集》(第一卷)(中國文史出版社, 1997), 29쪽.

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학회가 기능적으로는 국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것은 국가에 의해서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인들의 자발적인 활동이며, 제도적 정치와는 별도로 사회의 여러 문제를 연구하는 모임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회의 자발적인 조직 활동은 군주를 정점으로 한 제도적 정치와는 별도로 사회 내에 새로운 권력과 권위의 수립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더욱이 학회의 활동은 새로운 권력으로 부상한 근대적 매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회에서의 그 역할과 기능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청말 신해혁명 전후 시기 중국의 학술을 이끌어 온 것은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경향성이 강한 정치운동 그룹과 유학생 그룹이었는데, 이들이 주로 그 기반으로 삼은 것은 바로 신문·잡지의 매체와 출판기구였다. 당시 신문과 잡지는 단순히 지식소통의 매체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교양과 연구를 이끄는 중심이었다. 이는 전통적인 정치, 학술 시스템의 기능이 약화되고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기제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당시 이러한 매체는 정치적 담론을 주도하는 매체이자, 일종의 국민들의 교육기관이었고, 각 분야 연구를 지향하는 지식인들을 위한 학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가의) 현상은 혼탁하고 전도가 암담하여 어느 하나 절망케 하지 않는 일이 없다 그 가운데 한 줄기 광명이 있어 그런대로 위안이 되는 것은 세 가지 있으니, 학생이 나날이 증가하고, 서국(書局)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신문잡지사가 나날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내가 생각하기에 신문잡지사의 두 가지 천직은 첫째 정부에 대한 감독자이며, 두 번째는 국민을 이끄는 자라는 점이다.”²⁵⁾

25) “其現象之混濁，其前途之黑暗，無一事不令人心灰望絕。其放一線光明，差強人意者，惟有三事：日學生日多，書局日多，報館日多是也。……某以爲報館有兩大天職：一曰，對於政府而爲其監督者；二曰，對於國民而爲其向導者是也。”梁啓超，〈敬告我同業諸君〉，〈新民叢報〉第17期(光緒二十八年，1902)。

이와 같이 량치차오는 20세기 초 중국의 변화가운데 학생과 서국(출판사), 그리고 신문·잡지의 증가를 들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신문·잡지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즉 신문·잡지는 정부와는 독립적인 존재로서 정부에 대한 다각적인 감독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민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언론의 일반적 기능에 대한 설명이기는 하지만, 권력과 사회 시스템이 급속히 이동하고 변화하던 당시 중국에서 이러한 매체의 기능은 각별한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신문·잡지는 대부분 종합적이거나 정치 혹은 교육과 관련된 것이었고, 전문성이 강한 것이라도 문학이나 농업, 법률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당시 신지식인 그룹은 일부 유학생들을 제외 하면 대부분 제도권 밖에서 비체계적인 독서를 통해 자생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이들은 쏟아지는 새로운 지식에 대한 번역물을 소화하기도 벅찼던 만큼, 지식을 창조적으로 생산해내는 연구자 집단을 형성하기에는 어려웠다. 특히 일본 유학생의 경우는 정치운동에 관여하거나 숙성예비과정을 등을 통해 교육을 이수한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연구자 집단을 형성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였다.

따라서 “학계” 건립을 주창하는 목소리가 본격적인 일본 유학의 붐이 일어나고 나서 10년이 지난 후, 수적으로도 훨씬 많은 비중을 점하던 일본 유학생들로부터가 아니라 신해혁명 전후로 미국에서 유학한 학생들로부터 나온 것은 미국학계의 특징과 더불어 중국 지식계의 역사적 특징에 기인한 바가 크다.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신해혁명으로 인한 정치적 환경의 변화로서, 신해혁명 이전과 비교하여 정치운동의 상대적인 퇴조 속에서 제기되었다. 운동성의 퇴조로 정치는 곧 담론의 실종과 이진투구의 각축장으로 변질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식인들 가운데서 “탈정치”의 조류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량치차오는 1915년 『대중화(大中華)』를 창간하고 이후 자신의 활동 변화와 관련된 감상을 토로하는 자리에서 정치활동에서 벗어나 사회개조 사업 활동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그 이유로서 그는 “이십여 년 동안 몇 차례의 경험을 통해 정치의 기초는 항상 사회에 있음을 깊이 깨달았다”고 하면

서, 당시 “전 중국의 총명하고 재기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정계로 모여들고, 사회방면에는 사람이 전무한” 상황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²⁶⁾ 물론 위안스카이(袁世凱)의 북벌시도로 정치활동을 바로 그만 두지는 않았지만, 그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의 호소는 두 달 후 발표된 다른 문장 속에서도 거듭 확인할 수 있어 그의 언사가 일시적 감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²⁷⁾ 이러한 사회에 대한 관심은 그 후 『신청년(新青年)』 동인들의 당시 제도적 정치와의 거리두기라는 공통의 지향에서도 확인 되듯이 모두 당시 사회적인 한 흐름 즉 정치로부터 사회로의 전향이라는 ‘탈정치’적 방향전환과 연관이 있었다.²⁸⁾

3. “학계”의 건립과 과학주의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중국내의 정치상황이 혼미한 상태에 있던 1914년 미국 코넬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런훙권(任鴻雋)은 <학계(學界) 건립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²⁹⁾ 이 문장이 특이한 것은 “학계(學界)”라는

26) “吾以二十年來幾度之閱歷，吾深覺政治之基礎恒在社會，……舉全國聰明才智之士，悉轉集於政界，而社會方面空無人焉。”「吾今後所以報國者」，《大中華》，第1卷 第1期(1915年 1月 20日)。

27) 梁啟超，〈作官與謀生〉，《大中華》第1卷第3期(1915年 3月 20日)。

28) 초기 신청년 동인의 이러한 입장은 1926년 후스의 회고에 따른 것인데(胡適, *The Renaissance in China*, 《胡適全集》第36卷(安徽教育出版社, 2003), p.175.), 이는 처음 동인들의 공통된 입장을 발표한 1919년 12월 <本誌宣言>에서도 재차 확인된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민중운동을 통한 사회개조로써, 과거 및 현재의 각 정파, 정당과는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다(我們主張的是民衆運動社會改造，和過去及現在各派政黨，絕對斷絕關係.)”. 《新青年》7卷1號(1919. 12). 하지만 동인들 가운데 후스는 초기에 정치담론 자체를 기피하고자 하였지만, 천무시우는 현실 제도정치와의 거리를 두는 데는 같은 입장이나 새로운 정치를 위한 담론투쟁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었다. 陳獨秀，〈今日中國之政治問題〉，《新青年》第5卷 第1號(1918. 7); 〈談政治〉，《新青年》第8卷 第1號(1920. 9) 등 참고. 당시 탈정치와 사회론적 전환의 흐름에 대해서는 차태근, <“사회론”적 전환과 비정치적 정치—5·4 운동에 대한 독법—〉，《中國近現代史研究》제43집(2009). 참고.

29) 런훙권은 학계건립에 대해 연속 2편의 글을 발표하였다. <建立學界論〉，《留美學生季報》民國三年夏季 第二號(1914. 6); <建立學界再論〉，《留美學生季報》民國三年秋季 第三號(1914. 9).

말 그 자체보다도, 중국에 학계가 없다는 선언적인 표현 때문이었다. 그는 이 글에서 “학계”의 기준에 대해 몇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학계란 단순히 지식인 집단의 유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특수한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과학에 입각해 논하거나 제안하여 사람들로부터 준칙이나 표준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권위(authority)”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지식인이 모여 있고, 또 그것을 재생산하는 학교라는 것은 학계를 건설하기 위한 토대이자 수단일 뿐이다. 이러한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학계는 당연히 전문적인 권위의 유무라는 결과만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다. 런홍권에서 주목할 것은 그가 학계뿐만 아니라, “학(學)”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에게 있어 학(學)이란, 학교와 같은 일정한 제도적 훈련을 거친 것이거나 창의적 사고에 입각한 입론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결국 과학적인 학(學)이다. 즉 그에게 있어 학(學)의 기본 모델은 과학이었다. 이때 과학이란 그 목적에 있어서 바로 구체적인 실리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며, 반드시 논증을 위한 특정한 방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공리성과 진실을 추구하는 과학적 방법(특히 귀납적 방법)이 바로 ‘학’의 기본 전제이다.³⁰⁾

또 학자의 모델은 당연히 과학자이다. 이때 과학자란 단순히 과학연구의 종사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좀 더 엄격히 제한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즉 그에 따르면 과학자란 사실적 학문을 연구하여 미지의 이치에 대한 발명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³¹⁾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러한 연구를 통해 전례 없는 새로운 발명을 통해 인류지식의 진보에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 이것은 학자가 단순히 교양적인 지식인이 아니라 특정 지식분야의 전문가이자 권위자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단순히 일반론적인 시각을 토로한 것이 아니라 당시 중국 사회의 몇 가지 주요 현상을 겨냥한 것이다. 먼저 그가 가장 비판적인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앞서 왕귀웨이도 지적한 바 있는 중국의 지식계, 또는 유학생

30) <論學>, 《科學》 第二卷第五期(1916. 5); <建立學界再論>, 《留美學生季報》 民國三年秋季 第三號(1914. 9).

31) <何爲科學家>, 《新青年》 第六卷第三號(1919. 3).

계의 문제점이었다. 즉 대부분의 지식인 혹은 유학생들이 학문 그 자체에 목적이 있기 보다는 베이징의 정가에 더 관심을 두고 있었다. 유학 후 귀국을 하고 나서도 찾는 것은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의 진입이었다. 특히 1915년 국가에서 관리임용을 위한 유학생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자³²⁾ 이는 과거제 폐단의 부활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은 ...과거제의 유습이다. 내가 과거제의 폐해를 얘기하는 것은 단지 시험을 보는 내용이 유용하지 않아서 일뿐만 아니라, 천하의 인재들을 모두 정치라는 한 길로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인재가 정치 한 분야에 집중되면 사회의 사업은 자연 소실되어 버린다.”³³⁾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유학생만이 아니라 베이징대학 등 중국내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였으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량치차오가 바로 같은 시기에 정치에서 사회로의 활동전환을 선언한 것도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두 번째는 전문가 집단의 부재로 인한 각 분야의 사회개조와 변혁, 건설 등에 있어서 소모적인 정치적 언설이 지배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단순히 효율성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정치권력의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지배와 농단의 온상이 된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런홍권이 말하는 학계의 건립은 바로 사회 각 분야에서의 전문가에 의한 정책결정과 더불어 정치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학계권력을 창출하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정치적 복벽이 상징하듯이 여전히 사회 각 분야에서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구문화 집단이다. 이들은 모두 사회의 덕망있는 지식인 집단으로 자부하였지만, 런홍권은 그들로부터 “학인(學人)”의 자격을 박탈하였다. 즉 학문에 사실성과 정확성, 방법론적 훈련 등을 요구함으로써 주로 “문자”의 연구³⁴⁾, 즉 문장과 문학연구에 집중했다고 본 문사집단(文士集團)

32) 《上海時報》(1915. 2. 28).

33) <歸國後之留學生>, 《留美學生季報》民國四年夏季 第二號(1915. 6).

34) “吾國二千年來所謂學者, 獨有文字而已” <建立學界再論>, 《留美學生季報》(民國三年秋季 第三號(1914. 9)).

에 대해 “學”의 권위를 취소하는 한편 새로운 학문진보의 장애물로 선언함으로써 사회에서의 이를 대체할 새로운 권위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즉 그의 “학계” 건립은 바로 신문화 집단의 사회적 권력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런훙권의 이러한 “학계 건립론”은 실은 1915년부터 본격화되는 중국사회의 중요한 변화의 방향이자 핵심내용이었다. 특히 그는 학계의 건립을 위한 방법이자 수단으로서 학교의 문제와 학회의 조직을 내세웠는데, 1915년에 결성된 자신과 미국유학생을 중심으로 결성한 “중국과학사(中國科學社)”³⁵⁾는 바로 1914년부터 그가 제기해 온 학계 건립론의 일환이었다. 물론 그가 제기한 학회는 중국 역사상 전통적인 학회와 구분되는 특수한 학회이다. 그에 따르면 전통학회는 주로 고서(古書), 경사(經史)를 바탕으로 《대학(大學)》의 이념 즉 ‘수신·평천하’를 목적으로 한 덕육 중심의 학회이며, 한 명망있는 대가의 강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에 비해 그가 주장하는 새로운 학회는 실험과학 및 그 응용에 바탕한 지육(智育) 중심의 학회이며, 다수의 대등한 전문학자들의 상호토론과 연구를 통해 진행되는 학회이다.³⁶⁾ 따라서 그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역사상 이렇다 할 “학사(學社)”가 존재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와 대조적인 영국, 독일, 미국 등의 대표적인 학회를 소개하면서 영국의 왕립협회를 모델로 하여 “중국과학사”를 조직한 연유를 다음과 설명하였다.

지금 한 국가의 문명의 수준에 대한 평가는 영토 및 국민의 규모나 군사무기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국민의 지식수준과 사회조직의 완비 및 일반생활의 진화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현대 과학의 발달로 이미 인류 생활, 사상, 행위, 욕망에 새로운 국면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에 과학연구가 없다면 지식이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과학적인 조직이 없다면 사회조직은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완전한 현상이 존재한다면 사회생활의 상황은 곧 가늠해 볼 수 있다. 과학사의 조직은 바로 이 두 방면의 결합을 보충하려는 것이다.³⁷⁾

35) 원명은 “과학사(科學社)”였으며, 1915년 미국 코넬대학 중국 유학생 趙元任, 任鴻雋, 楊銓 등이 중심되어 조직한 학회로서 기관지 《科學》을 발행하였으며, 1959년까지 활동한 중국 현대의 가장 대표적인 과학학회였다.

36) <外國科學社及本社之歷史>, 《科學》 第三卷第一期(1917. 1).

37) “現在觀察一國文明程度的高低, 不是以廣土衆民、堅甲利兵爲標準, 而是以人民知識的高明,

이와 같이 런홍권과 중국과학사 멤버들은 과학 구국론을 주장하였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지식과 사회조직을 위해 과학을 연구하는 학술공동체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특히 사회조직을 위해서는 과학에 근거해야 함을 주장함으로써 과학과 과학자의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체계적인 조직편성과 활동 규약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학술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과학》 잡지 발간, 서구의 전문적인 과학도서 번역, 전문용어 정리, 도서관 설립, 연구소(특별 연구소 포함) 설립, 박물관 설립 등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였다.³⁸⁾

중국과학사(中國科學社)의 이러한 시도는 19세기 말 이후 여러 학회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이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에 대한 독자적이고 통일된 인식을 갖추고 있었으며, 사회정책이나 인생관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다.³⁹⁾ 이러한 독립적인 연구방법과 조직체계는 과학공동체라는 학계의 건립과 그 사회적 지위 및 권위를 수립하는데 토대를 제공하였다.

한편 학계의 건립을 위해서는, 런홍권도 지적인 바와 같이 학회와 더불어 연구소의 수립이 중요하다.⁴⁰⁾ 따라서 중국과학사는 1922년 중국 최초로 산하기구로써 생물연구소(생물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하였다.⁴¹⁾ 그러나 학술 전문연구기구로서의 연구소를 중심으로 제도적으로 학계의 건립을 본격 추진한 것은 바로 차이위엔페이(蔡元培)가 개혁을 주도하던 베이징 대학이었다.⁴²⁾

社會組織的完備和一般生活的進化來做衡量的標準，現代科學的發達已經將人類的的生活、思想、行爲、願望開了一個新局面，一國之內，若無科學研究，可算是知識不完全，若無科學的組織，可算是社會組織不完全，有了這兩種這完全的現象，那麼社會生活的情形就可想而知了。科學社的組織是要就這兩方面彌補缺陷。”任鴻雋，〈中國科學社社史簡述〉，全國政協文史和學習委員會，《文史資料選輯》第15卷，1961.

38) 과학사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范鐵權 著, 《體制與觀念的現代轉型-中國科學社與中國的科學文化》(人民出版社, 2005) 참고.

39) 이에 대해서는 張君勱, 任鴻雋 等 著, 《科學與人生觀》(遼寧出版社, 1998) 참고.

40) <介紹韋斯特研究所>, 《科學》第三卷第七期, 1917. 7. 여기서 “韋斯特”는 미국의 “The Wistar Institute of Anatomy and Biology, Philadelphia”를 가리킨다.

41) 薛攀臯, <中國科學社生物研究所>, 《中國科技史料》第13卷第2期(1992), 47~56쪽.

42) “중국과학사”와 차이위엔페이, 그리고 중앙연구원(中央研究院)의 관계에 대해서는 張劍, <蔡元培與中國科學社>, 《史林》(2000年02期); 洪洪業, <北大校長蔡元培與中國科學

4. 대학 및 연구소: 지식권력의 중심

차이위엔페이는 위안스카이의 통치에 대한 불만으로 1912년 7월 교육총장직을 사임하고 1913년부터 프랑스로 가 리스칭(李石曾), 우위장(吳玉章) 등과 “프랑스 유학생 근공검학회(留法勤工儉學會)”, “중불교육회(華法教育會)”를 조직하는 등 교육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그는 런홍권이 《과학》잡지 발간을 기획하고 있을 때 그와 통신을 하면서 중국의 학술계에 대해 유사한 견해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그는 당시 유럽의 학술계가 세부 분야로 전문화되고 실증적인 연구를 중시하여 과학이외의 심리나 교육분야에도 과학적 연구방법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과학적 연구를 위해 전시관, 박물관, 도서관과 같은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⁴³⁾

그 후 그는 1917년 귀국하여 베이징대학 총장에 취임하면서 유럽의 대학이념에 근거한 베이징대학 개조를 진행하였다. 대학 개조의 사상적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그의 대학이념은, 뤼지아룬(羅家倫)에 따르면 베를린 대학을 건립한 빌헬름 폰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⁴⁴⁾, 그는 학술의 독립과 대학의 자유를 무엇보다도 우선시 하였다. 차이위엔페이 역시 사상의 자유와 포용의 정신을 교원임용의 원칙으로 삼고 신구를 망라한 인재를 채용하였다. 또 학문에 있어서도 우선 과학, 즉 현상의 과학, 발생의 과학, 계통의 과학을 바탕으로 이를 종합한 철학 외에도 현학(玄學)의 의미를 부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차이위엔페이의 학문관과 교육사상은 런홍권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실제로 차이위엔페이는 중국과학사의 《과학》잡

社>, 《科學》第50卷3期(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8.5) 참고. 차이위엔페이와 중국과학사는 초기부터 서로 왕래가 있었지만, 적극적인 관계는 1917년 차이위엔페이가 베이징대학 총장을 맡고 중국과학사 회원이 되면서부터이다.

43) 高平叔 編, 《蔡元培全集》第二卷(中華書局, 1984), 339쪽.

44) 羅家倫, <蔡元培先生與北京大學>, 羅家倫, 《逝者如斯集》(臺北: 傳記文學社, 民國56年), 55쪽.

지를 보고 자연과학에 편중되어 전체를 보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그의 대학개조에 중요한 것은 바로 연구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위상 확립이었다. 그는 베이징대학 총장취임 연설에서 대학의 첫 번째 중지를 전문 대학과 구분하여 “대학은 가장 심오한 학문을 연구하는” 것⁴⁵⁾이라고 역설하였다. 즉 대학은 당시 중국의 학생들이나 외부에서 생각하듯이 단순히 교원양성 소도 아니고, 또 예비 관료양성소도 아니라 학문연구기관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근대라는 시공간에서 국가든 아니면 개인의 일상이든 급격한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바로 학문이라는 인식에 기초해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조치로서 그는 대학의 교과과정과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소위 대학문화를 배양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실험하였다. 그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자치활동이었다.

활동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취미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운동이며, 마지막 또 하나는 바로 학술활동이다. 먼저 취미활동을 보면 체육회, 음악회, 서법연구회, 화법연구회, 웅변회, 유예회(游藝會), 열서보사(閱書報社), 정좌회 등이 있는데, 이는 차이위엔페이가 남달리 강조하던 심미적 교육을 통한 인격수양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생활운동으로는 진덕회(進德會), 소비회사(消費會社), 학생은행, 교역야반(校役夜班, 즉 교내직공 야간강습반), 평민학교, 평민강연단 등이 있는데, 이는 자치적인 상호부조와 사회봉사활동에 관계된 것이었다. 이러한 활동은 “학계”의 건립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새로운 대학 문화와 대학인(대학생과 대학교원)의 모델을 만드는 시도였다. 즉 그 이상적 경계를 말하자면 순수 학문적 열정과 자율,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대학 문화는 바로 단순한 지식전문가가 아닌 스스로를 독특한 문화적 자원을 바탕으로 사회로부터 특수한 권위와 지위를 승인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45) <就任北京大學校長之演說>(1917.1.9), 高平叔 編, 《蔡元培全集》 第三卷(中華書局, 1984), 5쪽.

학계 건립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세 번째 학술연구 활동이다. 그 구체적 내용은 각 전문영역별 연구소를 설립하여 각종 연구 활동을 전개하는 것인데⁴⁶⁾, 영문연구소, 철학연구소, 국문연구소, 프랑수문학연구소, 수학연구소, 이과연구소(물리, 화학연구소), 법률문제연구소, 정치문제 연구소, 경제문제연구소등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연구소는 독자적인 도서관과 통신 연구원 제를 두고, 매달 강연회나 연구보고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조직과 활동에 있어서 체계성이 부족했으며, 그 결과 1920년부터 자연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외국문학연구소, 국학연구소 4부문으로 재편하였고, 그 후 해외 연구소 운영방법을 참조하여 연구소의 조직과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⁴⁷⁾ 그 중 주목할 것은 바로 연구소의 연구원의 자격을 베이징대학 졸업생 외에도 일반 연구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여 통신원 연구 제를 두었고, 위 4부문이 각각 3개월씩 분담하여 매월 연구잡지를 발간했다는 점이다.⁴⁸⁾

이외에 또 학술활동으로 주목할 것은 “학술강연회”이다. 차이위안페이는 일찍이 1917년 12월 학술강연회를 조직할 것에 대해 교육부에 건의 한 적이 있다. 거기서 그는 최근 중국 민간사회가 날로 안일만을 쫓고, 지식인 사회가 날로 쇠락하는 이유는 바로 학술이 쇠퇴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지식인 사회의

46) 베이징 대학 연구소의 조직 및 활동은 1918년 7월 16일에 발표된 <研究所總章(最近各研究所主任開會議決案)>에서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그 중 조직과 활동에 관한 일부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각 분과대학 가운데 각 문(門)은 모두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예, 철학연구소, 중국문학문연구소 등) 연구소는 각 문(門)의 각종 교원으로 조직되며, 특별한 경우 전문학자를 초빙할 수 있다. 본 교 졸업생은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며, 재학생 중 우수한 자는 연구소 주임의 승인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2. 연구는 특별 주제에 대한 개별연구와 교원 공동연구 두 가지가 있다. 3. 각 연구소 연합회의는 매학기 1회 개최한다. 4. 각 연구소의 교원과 연구원은 매월 전체 회의를 열어 연구결과를 보고하거나 강연을 진행한다. <北京大學日刊>(民國7年7月16日).

47) 蔡元培, <北大研究所組織大綱提案>(1921.11.28), 《蔡元培全集》 第三卷(中華書局, 1984) 134~135쪽. 4부문 연구소 중 연구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국학문연구소’를 보면 그 산하에 ‘가요연구회’(1920년 설립), ‘명청사료정리회’(1922년 설립), ‘고고학회’(1923년 설립), ‘풍속조사회’(1923년 설립), ‘병언연구회’(1924년 설립)를 두고 있었다. 북경대 국학연구소에 대해서는 陳以愛, 《中國現代學術研究機構的興起—以北大研究所國學門爲中心的探討》(江西教育出版社, 2002) 참고.

48) <在北大研究所委員會第一次會議發言>, 《北京大學日刊》(1922年2月27日).

기풍을 바로잡고 학술을 부흥시키기 위해 강연회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강연회의 목적은 과학을 보급하고 연구에 대한 관심을 진작시키는 것이라 말하고, 매주 일요일 1회 개최할 것을 건의하였다.⁴⁹⁾ 그 결과 실제로 베이징대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러한 각 연구소의 활동과 학술강연회는 당시 학술계에 새로운 연구기풍을 조성하였다.

베이징대학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연구 활동은 학술연구 자체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지식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내용도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베이징 대학 학생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새로운 형식의 연구소와 학회모임들이 결성 되었고 그 연구보고는 각각의 다양한 학술지나 잡지를 통해 사회전반으로 전파되었다. 특히 분과학문과 전문적 주제에 대한 학술지 발간과 함께, 중국사회의 각 문제와 각 학문영역의 제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면서 전반적으로 사회적 담론 성격의 변화를 촉진시켰다. 그 변화를 보면, 첫째,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사회의 담론도 정치적 담론의 편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둘째, 연구방법과 논쟁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논쟁의 수준이 제고되었으며, 학술적인 전문적 논쟁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셋째, 전반적인 구문화진영의 퇴진과 신문화진영의 지식인들이 사회의 각 방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새로운 학술 패러다임을 확립했다. 넷째, 지식의 대중화와 더불어 고도의 전문적 담론이 동시에 진행되고, 관심과 관점의 차이로 인한 신문화진영의 분화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 비교적 체계적인 연구소가 설립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은 1922년 이후부터였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중국과학사에서 처음 생물연구소를 설립한 것이나 베이징대학에서 연구소의 조직을 재 정비한 것도 1922년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대학연구소의 확산을 위한

49) <爲組織學術講演會呈教育部文>, 高平叔 編, 《蔡元培全集》 第三卷(中華書局, 1984), 116~117쪽.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1922년 주광潛(朱光潛)은 연구원(研究院)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 하였고,⁵⁰⁾ 홍스궈(洪式閻)는 서구의 학문이 발달한 까닭은 바로 고등학술을 연구하기 위한 전문학술기구가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기구를 통해 전문학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보았다.⁵¹⁾ 또 런홍궈도 재차 연구소의 필요성을 제창하며 “과학의 지속적인 발전은 반드시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소를 우선 설립해야 하고, 연구는 공동조직에 의거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²⁾ 이러한 조류 속에서 주요 대학에서 베이징대학과 유사한 여러 연구소들이 건립되었다. 1924년 동남대학 국학원, 1925년 칭화대학 국학연구원, 1926년 하문대학 국학원, 1928년 중산대학 언어역사학연구소, 1928년 연경(燕京)대학 국학연구소가 건립되었다. 뿐만 아니라 1928년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최고 학술연구기관”인 중앙연구원을 건립하였다.⁵³⁾

이상의 변화 결과 조직된 전문가 그룹이 출현하면서, 이들이 사회의 주요 여론을 형성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였으며, 그들만의 전문적인 지식과 특수한 화법을 통해 사회의 여론과 문화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바로 중국 사회에서 발언의 새로운 진원지이자 권위인 “학계”라는 것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바로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지식인, 전문가 집단을 어떻게 국가의 기능 속으로 조직하느냐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학술권력과 정치권력 사이의 길항관계가 전례 없이 형성되었다.

50) 朱光潛, <怎樣改造學術界?>, 《時事新報》(1922. 3. 30-31). (陳以愛, 앞의 책, 70쪽, 재인용)

51) 洪式閻, <東方學術之將來>, 《晨報五周年紀念增刊》, 19쪽(陳以愛, 앞의 책, 70쪽, 재인용).

52) 任鴻雋, <中國科學社之過去及將來>, 《科學》 第8卷第1期(1923).

53) 최근 중앙연구원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그 중 다음을 참고. 林文照, <中央研究院的建立與發展>, 載董光璧主編, 《中國近現代科學技術史》(湖南教育出版社1997); 徐明華, <中央研究院與中國科學研究的制度化>,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 第22輯; 陳時偉, <中央研究院與中國近代學術體制的職業化, 1927-1937>, 《中國學術》 第15輯; 陶英惠, <蔡元培與中央研究院>, 《中央研院!近代史研究所集刊》 第7輯.

5. 근대 지식권력의 문제점

학술은 한 사회의 문화의 수준을 기늩케 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그것을 둘러싼 헤게모니 투쟁도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그 투쟁은 주로 정치적 권력과 사대부/ 지식인 집단의 권력 사이에서 전개되었다. 앞서 본 20세기 이전 중국 사회에서 치통과 도통을 둘러싼 황권과 사권(士權)의 갈등은 공묘의 위상에 대한 논쟁으로 전개되었으며, 또 청대에는 주자학의 관방 이데올로기화에 따라 이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학술권력으로서 학통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세기 말 20세기 초 서구학술담론의 이입과 그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 및 학술 패러다임의 변화로, 정치권력과 학술권력간의 경쟁 구도도 변화하였다. 이 시기는 구체제 권력의 약화와 학술권력의 부재 속에서 교양 지식운동을 주도한 언론매체가 새로운 권력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양운동은 제도적 토대를 갖추지 못했고, 또 언론매체 자체도 토대가 미약함으로써 사회의 권위와 권력에 대한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함으로써, 당시 사회는 전반적으로 무정부주의적 상황에 가까웠다.

한편 신해혁명은 일차적으로 새로운 정치권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적 권위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쉬지린이 말한 바와 같이 민국초기 정치상황을 보면 여전히 권력의 합법성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권위의 부재상태가 지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전통적인 학술권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권위가 수립되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5·4 신문화운동은 바로 새로운 문화와 학술권위를 수립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세기 초 언론매체의 교양운동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신청년》을 중심으로 한 계몽운동은 이러한 사회적 권위를 수립하기에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운동방식은 헤게모니 투쟁에서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실천이 뒷받침되어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강력한 물리력을 갖춘 정치권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적 담론투쟁과 더불어 정치권력이 대신할 수 없는 독자적인 토대에 기반한 권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문화 운동시기에 동시적으로 진행된 새로운 학술운동, 즉 “학계”건립을 위한 시도는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계의 독립에 대한 인식과 그 건립을 위한 시도는 20세기 초 왕국웨이(王國維)⁵⁴⁾와 민국 초 국가최고 학술기구를 조직하려 한 마상백(馬相伯)⁵⁵⁾를 비롯하여 신문화운동 전후시기에 점차 사회적인 여론을 형성해 가고 있었다.⁵⁶⁾

“학계”의 건립은 학술의 정치로부터의 자유와 자체의 독립적인 방식을 통한 권위의 창출을 통해 형성된다. 학술은 그 자체가 수단이 아닌 목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어떠한 외부의 간섭과 억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중국에서 학술의 권위는 보편적인 진리에 대한 탐구라는 일반적 선언이 아니라 국가건설이라는 근대적인 민족지상과제와 결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신해혁명 이후 학계건립이 탈정치화를 주창한 것도 바로 국가건설에 있어 정치계의 한계와 사회전반의 무기력을 비판하고자 한 것이었다. 여기서 새로움이 있다면 근대국가 건설이 단지 정치적 제도와 권력구조의 창출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래로부터 사회건설을 통해,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비로소 정치적 제도와 권력구조가 확립될 수 있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사회와 국가로부터 특수한 지위와 권위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학술연구와 국가건설 및 발전과의 연관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이

54) “학술논쟁은 단지 시비와 진위의 판별에 있을 뿐이다. 시비와 진위 판별 이외에 국가, 인종, 종교의 관점이 개입하는 것은 학술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학술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서도 발전시킬 수는 없다. 학술의 발전은 그 독립에 달려 있을 뿐이다.(學術之所爭, 只有是非真偽之別耳, 於是非真偽之別外, 而以國家人種宗教之見雜之, 則以學術爲一手段而非以爲一目的也. 未有不視學術爲一目的而能發達者, 學術之發達, 存於其獨立而已.” 王國維, <論近年之學術界>, 《王國維文集》(三), 中國文史出版社, 39쪽.

55) 朱維鈺 等著, 《馬相伯傳略》, 復旦大學出版社, 2005, 162쪽.

56) 한편 학술 권위의 수립은 단순히 번역지식의 독점을 통해서가 아니라 독자적인 연구능력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체계적이고 집단적인 학술교류를 통해 창조적인 지식과 담론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연구기관이다. 梁啓超, <學問獨立與清華第二期事業>, 《清華周刊》 第350期, 1925.

는 그들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사회적, 혹은 국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외부의 요구 때문만이 아니라, 학계건립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승인받기 위해 내부 구성원들 스스로가 내세운 명분이기도 하다. 즉 량치차오 등이 19세기 말에 이미 명명한 “학전”이라는 개념은 신해혁명 이후에도 여전히 중국의 근대적인 학계 건립론의 이론적 전제였다.

런홍전은 중국에 학계가 없음을 통탄하면서 학계란 바로 어두운 밤에 길을 인도하는 촛불과 같은 것으로 비유하고, 국가는 바로 국민성의 발산이며 강고한 국민성이 없으면 역시 강고한 국가도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한 나라의 강약을 보려면 먼저 그 나라의 학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였다.⁵⁷⁾ 특히 한 국가의 도덕, 문화의 발전은 바로 과학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중국이라는 국가가 빈약한 이유는 바로 과학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과학이 지식의 발전에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 문화의 발전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과학은 산업이나 교육 등 국가의 일부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전체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중국 과학사의 종지는 부국강병 및 물질상의 행복의 증진뿐만 아니라 지식계와 정신계에도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학을 우리나라(중국)에서 발전시키는 데 있다”고 선언하였다.⁵⁸⁾

이와 같이 근대학문이나 지식의 특징은 그 자체가 보편성을 표명할지라도, 항상 연구자의 국적을 통해 최종적인 의미를 획득한다. 오히려 근대적 학인, 즉 전문가는 그 어느 계층보다도 국가에 대한 포부와 책임의식이 강한데, 이는 자신들이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중심이라는 “자각”에 비례한다. 즉 국가 내에서 특수한 직업군이자 신분으로서 학인(學人)은 그 무엇으로부터도 자율성과 존중을 요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가의 논리를 통해 자신의 의미를 더 더욱 부각시키려 하는 것이다.⁵⁹⁾ 따라서 근대 학인과 학계는 국가나 자본의

57) <建立學界論>, 《留美學生季報》民國三年夏季 第二號, 1914. 6.

58) 任鴻雋, <在中國科學社第一次年會上的開幕辭>, 《科學》第三卷第一期, 1917. 1.

59) 이러한 근대의 학인과 학계는 전통적 토집단과 대조적이다. 전통적인 토집단은 자신의 독립적인 인격과 학문(道)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외부의 어떠한 간섭이나 위협에도 굴하

지원을 구하게 되고, 국가나 자본은 이들 학인과 학계를 자기발전의 토대를 구성하는 한 도구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 결과 민국시기 중앙연구원의 경우에서처럼 학술에 대한 정치의 우위를 초래하게 되고, 학술은 정치적 논리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1928년 중앙연구원을 설립할 때부터 차이위안페이는 연구기구의 정부로부터의 독립과 학술연구의 자유를 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종지 가운데 하나로 천명하였다. 그러나 국민당 정부는 이러한 탈정부, 탈정치논리를 지향하는 연구기관을 정부의 부속기구로 삼으려 했으며, 3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중앙연구원은 국가의 긴급한 사안을 연구하는 정책보조업무를 맡게 된다.⁶⁰⁾

이러한 연구기관의 정치에의 종속화는 중국만의 경우가 아니라 국가의 기능과 권력이 극도로 팽창된 근대사회에서 학술이 직면하는 일반적인 상황이다. 특히 학문의 국가학(국가의 중요한 한 정책적 사업이라는 의미에서)은 과학이 하나의 기술로 간주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 특히 20세기 들어서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그런 까닭에 근대 학문연구의 이러한 성격과 문제점에 대해서 일찍이 막스 베버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는 바로 중국에서 학계건립을 주장하던 시점인 1917년 학문연구와 연구자의 국가자본에의 종속을 경고하기도 하였다.⁶¹⁾ 이는 연구자와 학계의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권위가 물질적 토대를 갖추지 못할 때, 결국 국가와 자본, 특히 거대 국가자본에 종속되는 것을 면할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서구의 학계를 모델로 한 20세기 전반 학계의 건립이 처음부터 국가학의 논리를 내재화시킨 가운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즉 학교나 국가, 자본의 지원 없이는 경쟁력 있는 학계라는 것은 존

지 않아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특수한 가치와 능력을 국가에 한정하지 않고, 보편적인 차원에서 의의를 부여하였다. 즉 그들은 한편으로는 정치와 학계를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상호 교섭적인 관계로 인식하면서도, 그 정치나 학문의 의미를 일국적 관점이 아닌 보편적 세계의 관점에서 의미를 구하였다.

60) 錢斌, <學術自由與制度保障—以中央研究院為例>, 《安徽史學》 2010年第4期, 31~40쪽, 참고.

61) 막스 베버 저, 전성우 역, 《직업으로서의 학문》, 나남출판, 2006.

속하기 어려운 것이 20세기 학인이 직면한 조건이었던 것이다.

< 參考文獻 >

- 《時務報》第十冊.
 《湘報》第五十八號, 第百六十五號
 《新民叢報》第十七期
 《大中華》第一卷第一期, 第三期
 《留美學生季報》民國三年夏季 第二號, 秋季第三號; 民國四年夏季 第二號
 《新青年》第五卷一號, 第六卷第三號, 第七卷一號, 第8卷一號
 《科學》第二卷第五期, 第三卷第一期, 第三卷第七期, 第8卷第1期
 《上海時報》(1915. 2. 28)
 《北京大學日刊》, 民國7年7月16日; 民國11年2月27日
 朱熹撰, 《四書章句集注》, 中華書局, 1983.
 王世貞撰, 《弇州四部稿·文部·策四首·山西第三問》卷一百十五.
 陳建撰, 《學菴通辨·終編下》(卷之十二). 《學菴通辨(二)》, 商務印書館, 民國25年.
 王夫之, 《讀通鑿論·文帝》(卷一五), 中華書局, 1975.
 乾隆, 《日講四書解義序》, 《清聖祖製制文初集》卷一九.
 孫奇逢輯, 《理學宗傳》, 上海古籍出版社, 1995.
 劉廷詒撰, 《理學宗傳辨正》, 六安求我齋, 清同治11年(1872).
 洪頤煊撰, 《鄭康成不應罷從祀議》, 《筠軒文鈔》卷一(《續四庫全書·集部·別集類》).
 熊鈺撰, 《熊鈺勿軒先生文集·祀典議》卷四, 商務印書館, 民國25年.
 梁啟超, 《論中國學術思想變遷之大勢》, 《飲水室文集》(七),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8.
 章太炎, 《清儒》, 《章太炎全集》第三冊, 上海人民出版社, 1983.
 王國維, 《王國維文集》第一卷, 第三卷, 中國文史出版社, 1997.
 胡適, 《胡適全集》第36卷, 安徽教育出版社, 2003.
 高平叔編, 《蔡元培全集》第二卷, 第三卷, 中華書局, 1984.
 中國史學會, 《戊戌變法》(四), 上海人民出版社, 1957.
 羅家倫, 《逝者如斯集》, 臺北: 傳記文學社, 民國56年.
 任鴻雋著, 樊洪業, 張久春 選編, 《科學救國之夢—任鴻雋文存》, 上海科技教育出版社,

2002.

막스 베버 저, 전성우 역, 《직업으로서의 학문》, 나남출판, 2006.

시마다 겐지 저, 김석근 역, 《주자학과 양명학》, 까치, 1993.

田浩編, 楊立華·吳艷紅譯, 《宋代思想史論》,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3.

黃進興, 《優入聖域: 權力, 信仰與正當性》, 陝西師範大學出版社, 1998.

汪暉, 《中國現代思想的興起》(上卷, 第二部), 三聯書店, 2008.

王爾敏, 《晚清政治思想史論》, 華世出版社, 民國58年.

中國科學技術協會, 《中國學會史叢書》(第一輯第13冊), 上海交通大學出版社, 2008.

范鐵權著, 《體制與觀念的現代轉型-中國科學社與中國的科學文化》, 人民出版社, 2005.

陳以愛, 《中國現代學術研究機構的興起-以北大研究所國學門為中心的探討》, 江西教育出版社, 2002.

張君勱, 任鴻雋等著, 《科學與人生觀》, 遼寧出版社, 1998.

張玉法, <戊戌時期的學會運動>, 《歷史研究》(1998年5期).

차태근, <“사회론”적 전환과 비정치적 정치—“5·4 운동”에 대한 독법—>, 《中國近現代史研究》 제43집, 2009.

任鴻雋, <中國科學社社史簡述>, 全國政協文史和學習委員會, 《文史資料選輯》第15卷, 1961.

薛攀臯, <中國科學社荏苒研究所>, 《中國科技史料》第13卷第2期, 1992.

張劍, <蔡元培與中國科學社>, 《史林》, 2000年02期.

許紀霖, <為何革命壓倒了憲政-辛亥前後制度轉型之歧路>, 《辛亥革命100周年紀念國際シンポジウム神戸會議: 全球史中的辛亥革命》(第2分會), 2011.

張壽安, <打破道統重建學統-清代學術思想史的一個新觀察>,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近代史研究所集刊》第53期, 民國95年6月.

樊洪業, <北大校長蔡元培與中國科學社>, 《科學》第50卷3期,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8.5.

林文照, <中央研究院的建立與發展>, 載董光壁主編, 《中國近現代科學技術史》(湖南教育出版社1997).

徐明華, <中央研究院與中國科學研究的制度化>,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第22輯, 民國82年6月.

陳時偉, <中央研究院與中國近代學術體制的職業化, 1927-1937>, 《中國學術》第15輯, 2003年第3期.

陶英惠, <蔡元培與中央研究院-1927-1940>,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第7輯, 民

國67年6月.

錢斌, <學術自由與制度保障-以中央研究院為例>, 《安徽史學》 2010年第4期.

< 中文提要 >

中國歷史上, 學術的權力和政治權力一直處於緊張狀態, 所謂道統與治統就是構成權力的合法性的兩個核心概念. 中國的統治理念雖然以治道合一為理想政治, 但是權力則集中于皇權. 至于宋代, 中國士人階層開始積極追求樹立能牽制皇權的學術權威, 也就是說“道統”. 這表現在兩方面, 一是提高孔廟的象徵性的位置, 二是把以性理學為中心的道統. 可是, 到了清代, 朱子學變為官方意識形態, 而士人階層又試圖樹立另一種學術權威的學統. 清代的學統很重視專門化和學術獨立, 在這個意義上, 比較接近于近代的趨向.

19世紀末和20世紀初是政治權威和學術權威都面臨危機的時期. 辛亥革命以後逐漸形成樹立學術權威的潮流. 任鴻雋提倡“學界建立”而且組織中國最早科學學術共同体, 中國科學社. 同時期, 蔡元培就任北京大學的校長, 開始進行北京大學的改革. 其中重要的內容之一就是設立專門研究機構. 其後不少中國的大學模仿北京大學而紛紛組織各方面的研究所. 這些研究所標榜中國學術獨立于政治, 克服對西方學術的依賴.

但是中國近代學術, 與它們的期望不同, 從一開始不得不依靠政府的支援, 而且他們(她們)自己主張他們為了國家的發展作貢獻. 因此他們很難擺脫國家對他們的牽制和干涉.

關鍵詞: 學術權力、道統、治統、學統、學術共同体、近代研究所、學術獨立、科學社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3. 4. 15.	2013. 5. 9.	2013. 5. 20.	2013. 5. 24.	2013. 5. 31.